장백산천지

2022 년 6 월 9 일 제 435 기 목요일

2022 년 6 월 9 일 까지 해외 대기원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 단 ,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수 :

3 억 9711 만 명

인도 성형외과학장 우트팔 비트의사의 몸에서 발생한 믿기 어려운 기적

[밍후이왕] 금년에 64 세인비트는 10 년 전 질병으로 고통 받았을 때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차 보인다 .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인 그는 정작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던 사실에 크게 절망했다고 말했다 .

■ 파룬따파를 수련해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다

비트는 2004 년 기공수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소문해 여러 가지 수련과 수많은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 새로운 수련을 찾는 그의 모습은 가족들도 일상으로 인식하게 됐다 .

그는 2011 년 10 월 한 친구로부터 파룬따파를 소개 받고 수련을 시작했는데 , 수련 첫날 기적처럼 천식이 사라지고 알러지 현상도 매우 좋아졌다 . 그동안 천식으로 똑바로 누워 잠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끔씩 숨이 막혀 자다가 일어나야 했다 . 그러나 파룬따파를 수련한 첫날 밤 편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

비트는 20 대부터 만성기관지천식을 앓게 돼 먼지 , 꽃가루 , 면직물과 그 외 여러 가지 음식물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 심지어 조금 찬 공기에도 알러지 반응을 보여 호흡곤란 , 후두염 , 피부질환 등을 일으켰고 , 30 대에 고혈압 , 천식을 치료하기 위한 스테로이드제 복용으로 관절이 나빠져 무릎통증 때문에 걸을 때도 불편했고 , 계단을 오르기는 무척 힘들었다 . 천식과 알러지는 그의 삶을 참담하게 만들었다 .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 정상적인 일과 생활을 생각하는 것은 사치가 되고 말았다 . 매일 산소흡입과 항생제에 의존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져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도 삶 자체가 고통이었다 .

그는 곧바로 사부님의 9 개 강의를 듣고 연공을 한 지 몇 개월 후 걷거나 계단을 올라 갈 때도 무릎이 괜찮았다 . 현재 60 대인 그는 몇 시간을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 . 이는 그가 30 대에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다 .

■ 수련이 그의 층차를 제고시키다

비트는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전에는 독선적인 성격이었다 . 수십 년간의 어려운 교육과 인생경험을 하면서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됐고 , 다른 사람들이 그가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냈다 . 돈과 명예에도 집착해 일이나 사회생활에서 부당하게 취급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불평불만을 토로했다 . 집에서도 당연히 독단으로 결정하며 부인의 의견은 무시했다 .

▲ 비트 부부 .

그는 대법을 수련하고부터 부와 명예에 대한 추구가 점차 사라졌다 . 모순과 마주치게 되면 우주의 특성인 '진선인 (真 • 善 • 忍)'을 기준하며 안으로 찾아 바르게 고쳐 나갔다 .

한번은 5 명의 의과대학생이 시험을 치른 후 , 한 학생이 학점에 불만을 품고 공개적으로 불평하며 학점을 부과한 교수를 학교 측에 제소했다 . 그 사건을 맡은 사람은 학장인 비트였다 . 검토 결과 문제풀이가 길고 어려워 학생들이 제시간에 끝마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공평하 (2 면에 계속)

(1 면의 계속) 게 학점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2 명 학생이 같은 답을 썼는데도 각기 다른 점수를 받은 것도 발견됐다.

조사를 마친 비트는 학생들에게 "채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엄격한 채점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학장인 나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비트가 만약 파룬따파를 수련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동료 교수들은 학생의 태도에도 놀랐지만, 비트의 답변에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부 학생들은 비트 학장이 학생들에게 사과까지 할 필요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파룬따파가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준 것이다.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런 게 어렵지 지 않게 됐다."

비트는 집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자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부인과 의논하고 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인이 지적하면 부인의 말대로 고치려 노력한다.

■ 고향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파룬따파 서적을 번역하다

비트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했다. 많은 사람들이 파룬따파를 더 알고 싶어 했지만 벵갈어만 알고 있는 서벵갈 사람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인도어판 대법 서적을 읽을 수가 없었다. 한 친구가 비트에게 왜 벵갈어판 대법 서적은 없느냐며 직접 번역해보라고 제안했다. 2013 년 비트는 벵갈어로 파룬따파 책을 번역해 출판하기 위한 3 년간의 대장정에 들어섰다. 그는 우선 원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수

▲ 비트.

련생 제의로 대법 서적 원본과 중영사전을 구입해 병음부터 배웠다.

2013 년 비트는 벵갈어로 파룬따파 책을 번역해 출판하기 위한 3 년간의 대장정에 들어섰다. 그는 우선 원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수련생 제의로 대법 서적 원본과 중영사전을 구입해 병음부터 배웠다. 매일 집과 직장을 오가는 길에서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광저우(廣州) 법회', '다롄(大連) 법회', '오스트리아 법회' 녹음강의를 들었다.

서벵갈 파룬따파 수련생과 다른 지역 수련생들 역시 오직 인도어와 영어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비트는 혼자 해나갈 수 밖에 없었다.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대법의 힘으로 인내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나갔는데, 바쁠 때는 부인은 타자를 쳤고, 아들은 교정을 봐주는 등 가족이 모두 도왔다.

2016 년 벵갈어판 전법륜과 파룬궁이 출판됐다. 비트는 "길고 긴 여정을 되돌아보면, 사부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참기 어려운 것을 당신은 참아 보고, 보기에 안 되고 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당신이 한번 시험해 보라. 도대체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 당신이 정말로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고난 속에 광명이 있음(柳暗花明又一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015 년 이후 인도의 파룬따파 수련생들은 콜카타 도서전시회 참가를 초청받았다. 2016 년부터 벵갈어로 번역된 전법륜과 파룬궁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부스는 수련생과 대화를 나누려는 사람들과 대법 서적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수련생들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음악과 함께 연공 시연을 펼쳐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연공을 배운 후 모두 책을 샀다.

박람회주최 측 사람들과 책 판매자들도 파룬따파 부스의 팬이 됐다. 옆 부스의 담당자도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연공을 배웠다. 근무 중인 경찰관도 수련생들의 설명을 듣고 파룬따파를 배웠다.

2021 년 콜카타 도서박람회는 중공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다. 비트는 동료 수련생들의 도움을 받아 매주 인터넷에서 파룬따파 입문강의를 시작했다. 서벵갈 뿐만 아니라 인접한 방글라데시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가했다. 일주일 두 번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기간에도 빠짐없이 수련을 견지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신수련생들도 지속적으로 수련을 할 수 있었다.

탄광 감독, "파룬따파는 정말 경이롭다!"

[밍후이왕] 남편은 1997 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그전에는 심한 대장염과 복부에 혹이 있었다. 중의사도 양의사도 고칠 수 없었다.

하지만 파룬따파를 수련한 지 두 달 만에 대장염이 사라지고 완전히 회복됐다. 그는 또한 수련해서 열린 마음이 됐고 늘 행복했다. 이를 보고 나도 1998 년부터 수련을 시작했다.

남편은 석탄 광부였다. 그는 일상생활과 일에서 파룬따파의 '진선인(真•善•忍)' 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그만큼 그는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도왔으며 모든 기회를 포착해 사람들에게 파룬따파를 전했다.

2002 년 6 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탄광 작업을 할 때 거대한 바위가 머리 위로 떨어졌다. 동료 여섯 명이 몇 번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해봤지만,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동료 중 한 명은 "머리에 너무 세게 맞아 두개골이 부서졌을 거야"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고 그를 구하려는 시도를 포기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방금 큰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수련생임을 생각하고 자신이 괜찮을 거로 생각했다. '사부님, 저는 60 대 어머니와 4 살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게다가 저는 수련의 길을 한참 걸어야 합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으신가요?' 그 생각에 그는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일어설 수 있었다. (나중에 그는 자기가 어떻게 그 위에 있는 바위를 밀치고 일어설 수 있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사부님께서 보호해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일어섰을 때 그의 동료들은 유령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도망갔다. 18 세 소년만 그 자리에 남았다. 그 소년이 물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남편이 대답했다. 남편은 종종 그 소년에게 파룬따파와 그 기적에 관해 말했으므로 소년은 그를 믿었다. 그 소년이 남편을 안내해 땅으로 올라왔고 탄광 관리들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내가 도착했을 때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얼굴이 부어올랐고 입과 코에는 피가 흘렀다. 뇌 CT 사진에서 두개골의 80% 가 골절됐고 안면신경과 왼쪽 귀가 크게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왼쪽 눈을 움직일 수 없었다. 두개골과 두피 사이 6mm 에 피가 고여 있었다.

의사는 피가 뇌로 흐르면 생명이 위험하므로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수술 성공률은 0.1% 에 불과했다. 파룬따파와 사부님에 대한 믿음으로 남편과 나는 수술을 포기하기로 하고 의사에게 그 결정을 설명했다.

그날 오후 남편은 나와 친척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다. 입과 코의 출혈이 멈추고 두개골과 두피 사이에 고인 피가 사라졌다. 그날 저녁,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연공하고 조금 먹을 수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 환자, 가족 등 많은 사람이 파룬따파의 기적을 목격했다. 외과 과장이 "30 년 동안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일부 환자와 가족들은 파룬따파를 배우려 했다.

남편과 나는 사흘째 되는 날 퇴원을 허락해 달라고 했다. 탄광 관계자들이 크게 감동하며 말했다. "파룬따파 사부님 덕분에 회사가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더 계시면서 병세를 살피세요." 결국 우리는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일주일 후, 남편과 나는 고용주에게 상태를 보여주러 갔다. 한 탄광 관계자는 남편의 빠른 회복에 감동하며 "당신 같은 파룬궁수련생들이 더 많이 여기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남편은 계속 법공부하고 연공해 두 달 만에 완전히 회복됐다. 그는 모래주머니를 가볍게 들고 쉬지 않고 7 층까지 달릴 수 있었다. 나중에 남편 동료 중 한 명이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탄광 감독이 처음에는 파룬따파가 그렇게 위대할 거로 믿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내 남편이 바위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고 현장을 조사한 후 그는 충격을 받았다. 구덩이는 없었고 사방에 돌 조각만 있었다. 그 돌은 가로, 세로 약 1m, 두께는 50cm 였다. 그 바위는 사람의 머리는 물론이고 강철도 쉽게 부숴을 거라고 그가 말했다. "파룬따파는 정말 경이롭다!"

길림성 연길시 장징버(张晶波)는 박해로 장기간 유리표박 하던중 한을 품은채 세상뜨다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길림 보도) 길림성 연길시 파룬궁수련생 장징버 여사는 2008년 4 월 14 일 저녁 8 시 좌우에 자전거를 타고 귀가했을때 갑자기 아파트 입구에서 사복경찰 4_5 명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 이유도 없이 그를 연길시 국보대대로 납치했다 . 당시 장징버가 고문핍박을 당해 생명이 위독해지자 노교소에서는 수용거부를 했고 , 그는 가족에의해 귀가했다 . 그후로부터 장징버는 불법수배령을 받아 핍박으로 유리표박을 하던중 2022 년 5 월 8 일 , 52 세 되던해에 세집에서 사망했다 .

장징버는 연길시 아이단 (爱丹) 로 징양 (景阳) 소구역에서 살았다 . 부친이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집이 가난하다보니 장징버는 부득불 출국해 돈을 벌어 집에 보태야했고 , 장기간 피로끝에 그의 신체는 여러가지 질병으로 말도 아니었다 . 그의 모친도 지친 나머지 신체에 고혈압 , 허리디스크 , 골질증생 , 류풍습 등 여러가지 질병이 생겼다 . 특히 류풍습이 아주 엄중했는데 때로는 저녁에 자다가도 통증으로 깨어나 앉은대로 몸을 떨곤 했는데 두다리는 거이 마비되었고 , 많은 의사를 보이고 많은 토방법을 썼지만 효력을 보지 못했다 .

파룬궁을 수련한 후부터 그의 모친의 다리는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온몸의 병까지 모두 사라졌다 . 매일 삼륜차를 타고 동서를 오르내리며 분망히 보냈지만 힘든줄을 몰랐다 . 모친의 이런 큰 변화를 보고 온집식구들은 매우 기뻐했다 .

1996 년 8 월말 , 장징버도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고 ,< 전법륜 (转法轮)> 을 보고난후 꿈에서 깨어난 듯 단번에 여러해 동안의 서러움과 불평중에서 해탈됐으며 동시에 인생의 진정한 목표와 의미를 깨닿고 좋은 사람이 되는 중요성을 알게됐다 .

파룬따파를 수련한후 장징버는 대법 진선인 표준에따라 자신을 엄격히 요구했고 무릇 다른 사람에 대해 관용 , 자비 , 선량을 베풀었으며 , 더는 개인 이득을 탐내지 않고 타인을 고려해 누가 곤난이 있으면 이해하고 열심히 도와주었다 . 이런 변화는 수련전에는 근본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 동시에 그의 신체도 건강을 획득했다 .

1999 년 7 월 20 일 , 중공당규강택민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발동해 , 대법수련자들을 박해했다 . 오직 '진선인 (真、善、忍)' 신앙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장징버는 두차례나 납치되어 매번마다 불법으로 구류당했고 , 그중 한번은 구류당한후 노교소에 보내져 진일보 박해받았다 . 경찰은 가택수색할때 많은 개인자산을 약탈해갔다 . 장징버는 감금기간 잔혹한 고문구타를 받아 신체에 엄중한 손상을 받아 각종 다발진상이 나타났다 . 경찰은 그의 비행기표와 여권을 빼앗고 더는 외국으로 돈벌러 갈 수 없게 했다 . 또 그의 호구를 모두 삭제한데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해주지 않음) 신분증까지 없었기에 직장이나 세집을 찾기가 아주 어려웠다 .

그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 도 없었으며 20 여년을 유리표박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매우 고생했다 .

■ 싱가포르에서 귀국하여 평화청원해 납치되어 노교 박해를 받다

1997 년 7 월 말 ,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장징버는 싱가포르로 품팔이를 가면서 대법책도 지니고 갔다 . 그곳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을 만나 공작이외 경상적으로 그들과 함께 홍법하고 연공을 했다 .

1999 년 "7.20" 후 , 중공은 모든 선전 기구를 발동해 파룬궁을 비방 , 모독했다 . 싱가포르 매체도 모두 거짓선전을 전재했고 , 따라서 많은 싱가포르 민중들도 중공의 거짓선전을 믿기시작했다 . 장징버는 정부에 사실진상을 밝히려는 생각이 있어 2000 년 11 월 5 일 ,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후 평화청원을 실시했다 .

2000 년 11 월 6 일 , 장징버는 천안문 광장에서 경찰에 의해 불법납치되었고 , 당시 메고 있던 가방도 빼앗겼으며 , 가방안에 있던 청원편지도 갈기갈기 찢겼다 . 후에 그들은 그녀의 여권을 발견하고 그가 외국에서 왔다는걸 알아채고는 국제영향을 일으킬까 두려워 그의 돈만은 제자리에 넣어두었다 . 천안문파출소에서 한 중년 경찰이 장징버를 단칸 방에서 심문했는데 , 심문과정에서 장징버는 그 경찰이 다른 수련생을 돕는다는 거짓말에 기편돼 수백여원을 갈취당했다 . 경찰은 그의 가정주소와 성명을 알아 낸후 장징버를 연길 주재 북경판사처로 납치 (5 면에 계속)

(4 면의 계속) 했다.

2000 년 11 월 8 일, 장징버는 본지방으로 돌아온후 연길시 구치소에 10 여일 감금당했다. 그기간에 위씨 경찰은 그녀의 몸에서 뒤집어낸 마지막 수백여원까지 갈취해갔다.

2000 년 11 월 29 일, 장징버는 불법노교 3 년을 선고받고, 장춘여자노교소에 납치됐다. 노교소에서 불법감금된 파룬궁수련생들은 모두 반드시 죄수복을 입어야 했고, 호수를 웨쳐야 했으며, 감금걸이를 걸어야 하며 사진을 찍고, 옥경을 찾으려면 '보고'를 웨쳐야하는 등 인격이 대단히 모욕받는 행위에 복종해야했다. 옥경은 악독한 언어로 파룬궁수련생을 욕하고, 비웃으며, 감금 인원으로 표기하기위해 수련생의 머리를 짧게 자르고는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을 회손시켰다. 감금된 모든 파룬궁수련생들은 그곳에서 강제로 노예노동을 했다. 종류 일회용 젓가락 포장하기, 쓰레기 버리기, 책장 고르기, 콩고르기, 공예품 만들기 등 다양했다…특히 공예품 만들때 풀냄새는 직극히 독했고 사람더러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따가워 눈물을 흘리게 했으며 심지어 메슥거리게 만들었다. 공예품을 만들때 사용하는 깃털은 모두 염색해 가공한 것인데 건조한뒤 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나 호흡할때마다 폐부에 흡수했다. 흘리는 콧물의 색은 깃털의 색갈에따라 변하는데 그처럼 다양할 수 없었다. 매일 노예로동을 18 시간 이상해야 했고, 일이 많을때면 24 시간 연이어 해도 제시간에 완성하지 못한다면 따라오는 것은 옥경의 각종 폭행, 욕설과 체벌이였다.

노교소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매일 강제로 '전향'박해를 받는다. 아침에 옥경은 출근하면 신앙을 견지하는 수련생들을 하나하나 관교실로 불러들이는데 조금후 안에서 고압전기봉 충격소리와 고통으로 웨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매 수련생이 나올때면 고문받은 후의 허약한 온 몸에서는 탄냄새가 났다.

장징버는 수련을 포기하지 않아 1 대대 2 소대 옥경리만(李曼)에 의해 고압전기봉 충격을 두번 받았다. 경찰은 두터운 책집게로 그의 뺨을 내리쳤고, 겨울의 솜구두를 신은채 아래다리의 영면골을 발로찼다. 또 강박으로 그를 작은 방에 가두었는데 두 손을 등뒤로 거꾸로 한채 수갑을 채워 강철문에 고정했다. 그의 온몸은 맞아서 검은 자색으로 변했는데 아주 긴 시간이 지나서도 회복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차륜전(车轮战)' 박해를 실시했는데 3 일동안 밤낮을 자지 못하게 했다.

장징버는 생전에 말했다. "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로 매일 다른 사람들이 휴식할때에도 자지 못하게 하는 체벌을 받았습니다. 강박으로 세뇌하는 책 혹은 '방교(帮教)'에 불리워 나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밖에 강제로 세뇌 영상을 보게했고 본후 반드시 감상을 쓰게 했는데 그들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을 구실로 또다시 박해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노교소에서는 저에게 마음대로 수감기한을 늘렸는데 합쳐서 얼마를 늘렸는지를 나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다만 때로는 한달이 지나면 30 날을 늘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교기간 두번이나 혈압을 낮춘다는 이유로 강박으로 나에게 액체주사를 놓았는데 맞은후의 반응은 매번 머리가 아파 터질 것만 같았고 기억력이 점차 감소되어 때로는 머리가 텅비어 자기집 전화와 집주소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후 아주 긴 시간내에 노교소에서 발생했던 많은 일들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2000 년 _2003 년 노교소에 감금기간 매년마다 파룬궁수련생을 대상으로 강제로 전면적인 신체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 검사항목으로는 피검사, 심박수, 내장투시, 혈압검사 등이다. 의사들은 장춘시 각 (6 면에 계속)

(4 면의 계속) 큰 병원 각부문에서 왔다. 감금된 파룬궁수련생들은 모두 강제로 신체검사를 받았다. 장징버 차례가 됐을때 의사는 그가 고혈압 등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의사는 장징버를 보면서 비웃었다. "얼굴이 노란걸 보기만해도 간염이 있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노교소에서의 "전면검사"는 절때로 파룬궁 수련생의 건강을 관심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 앞으로 강제 장기적출을 위해 수치를 장악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노교소에서 장기간 심신의 잔혹한 박해를 받아 장징버는 정신이 붕괴될 지경이였지만 의사는 우울증으로 진단했다. 동시에 엄중한 두통,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 여러차례 보석치료를 하려 했지만 사상이 그들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당했다. 2003 년 사스기간 장징버의 상황이 점점 더 엄중해져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어려워 행동마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공안병원에 끌려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는 그의 상황이 아주 위험하니 마땅히 주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 혈압과 맥박이 극도로 불정상이였다. 고혈압 240, 저혈압 125 이고, 맥박은 1 분에 49 차밖에 뛰지않았다. 노교소에서는 그가 안에서 죽으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압력하에 부득불 장징버에게 보석치료를 수속해 주었다.

2003 년 5 월 12 일, 장징버는 구사일생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박해는 결속되지 않았다. 호구는 연길시조양파출소 경찰에의해 취소됐다. 그들은 새로 입기를 하려면 류신원 (刘新文) 소장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류신원을 찾아 서명을 요구하니 그는 "죄를 인정하는 태도"(그를 파룬궁수련을 포기 하도록 핍박) 를 보자고 했다. 장징버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 그는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장지버는 호구가 없고 신분증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했다.

■ 두번째로 납치되어 고문 구타 받다

연길시 장징버는 2008 년 4 월 14 일 저녁 8 시경에 귀가할때 아파트 입구에서 연길시국보대대 중 대장 송립해와 오씨, 610 성원 리성철 등 악경들에게 체포되어 갖은 혹형을 받았다. 악경들은 장징버를 등받이가 높은 철의자에 앉히고 끈으로 묶은 두팔을 등받이 위에 추켜놓고 족쇄를 채운 두 다리를 앞에 놓은 의자의 등받이 위에 들어 놓은 후 오씨 악경은 뒤에서 두팔을 힘껏 위로 잡아당기고 키 작은 악경은 앞에서 두 다리를 힘껏 위로 떠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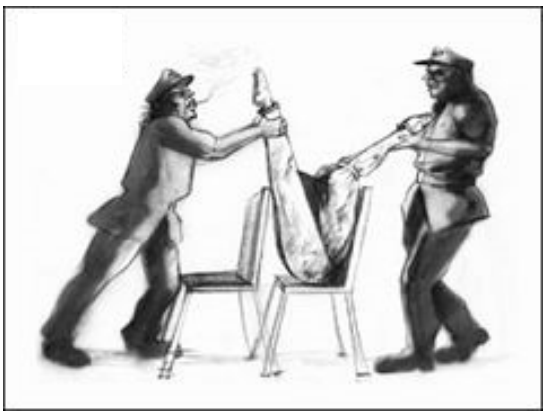
장징버가 팔다리가 끊어지듯한 고통으로 기절해 쓰러지면 악경들은 잠깐 쉬었다가 장징버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 또다시 혹형을 하곤 했다. 이렇게 8 시간동안 혹형을 당한 장징버는 온몸이 마비되어 걸을 수가 없었다.

2008 년 4 월 15 일 오전 10 시경에 악경들은 장징버를 연길시구류소로 압송했다. 사흘째 되는날 단식항의를 하고있는 장징버에게 강제로 이름 모를 주사를 놓았는데 절반쯤 놓았을때 장징버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온몸이 마비상태가 나타나자 급해 맞은 악경들은 장징버를 연변병원 응급실에 보내 치료했다. 의사는 고혈압이 200 이고, 저혈압이 130 이여서 생명이 위독하다고 했다. 4 월 21 일에 거의 죽게 된 장징버를 장춘시흑취자 여자노교소에 보냈으나 노교소에서는 책임이 두려워 장징버를 되돌려 보냈다.

이번 납치중 그들은 장징버의 주택을 불법 수색해 컴퓨터, 프린트, 녹상기, 사진기, 현금 3000 원, 은행카드 등 개인 자산을 강탈해갔다. 사진기, 3000 원현금과 은행카드를 돌려받은 외에 기타물품은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

1999 년 7 월부터 오늘날까지 이 한차례 피비린 박해중에서 단지 장징버 한사람만 잔혹한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식구들까지 연루되어 박해를 받았다. 악경은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집식구들의 핸드폰을 장기간 감시했고, 장징버의 어머니 장례식날까지 함정을 만들었기에 장징버는 엄마의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했다.

▶ 혹형을 당한 파룬궁수련생 장징버.



▼ 혹형 당한 10 일후에 찍은 사진.